

북스

Books

소설로 다시 태어난 로마 인물들

스파르타쿠스의 죽음/네로의 비밀/티투스의 승부수 막스 갈로 지음



“우리는 공화정이건 제정이건 건축의 차원이건 지식의 차원이건 로마 세계의 유산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도 없이 발표된 회화와 소설, 연극, 영화가 보여주듯 로마는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지요.”

대하소설 '나폴레옹'(문학동네·전 5권)의 저자 막스 갈로의 말이다. 저자가 로마 시대를 흥미했던 인물들을 소재로 지난해 쓴 소설들이 번역·출간됐다. 모두 5권으로 기획했으며, 이번에 출간된 것은 1~3권까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콘스탄티누스'를 다룬 4.5권은 올해 안에 출간될 예정이다.

저자가 로마를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 조금 더 들어보자. “그것은 로마 세계와 현 세계가 유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즉 우리는 고대 로마 때 그랬던 것처럼 극도의 우아한 세련과 최고로 혐오스러운 아반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법률과 정치, 질서와 기업 정신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세워져 기원후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부침을 거듭했던 로마의 역사는 지금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수에토니우스와 타키투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등 고대 작가들의 문헌을 연구한 끝에 로마의 인물들을 소설로 다시 탄생시켰다.

1권 '스파르타쿠스의 죽음'의 배경은 공화정 말기 이던 기원전 1세기. 마르쿠스를 비롯한 20세기 초 혁



스파르타쿠스

네로

티투스

명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스파르타쿠스는 2천년이 넘도록 '억압에 대한 투쟁'을 상징해오고 있다. 소설은 기원전 73~71년까지 진행된 노예 반란을 진압했던 로마의 정치인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로마의 속국 트라키아 출신 검투사인 스파르타쿠스는 다른 검투사를 중심으로 한 노예들의 탈출을 주도한 뒤 군대를 만들어 로마에 대항한다. '말할 수 있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10만에 가까운 노예가 결집해 로마를 상대로 한 전투에서 몇 차례 승리를 거두지만, 결국 스스로 정취한 자유에 도취해 분열하고 크라수스가 이끄는 로마 군단에 패한다.

2권 '네로의 비밀'은 로마의 5대 황제이자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의 이야기다. 화자는 네로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지켜본 세레누스. 세레누스는 네로의 스승 세네카의 제자이자 친구로, 네로의 폭정을 신중할 태도로 증언하는 인물이다. 네로는 시와 음악을 사랑했고, 자신이 원할 때면 언제건 경주대회에 나가거나 무대에서 연기를 한 관대이기도 했다.

반(反)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 아내 등 주변의 권력자들을 죽인 폭군의 전형을 보여준다. 네로의 궁정에서 벌어지는 비극과 음모, 권력 투쟁이 저자의 철저한 역사 고증과 상상력으로 재연된다.

3권의 주인공 티투스는 네로 이후 79~81년 재위한 로마의 황제. '티투스의 승부수'는 70년 예루살렘 사원을 약탈하고 파괴한 것으로 알려진 티투스의 인간적 고뇌와 갈등을 다루고 있다. 유대인을 굴복시키기 위해 떠난 전쟁의 여정에서 유대 여성을 사랑하게 된 티투스는 끊임없이 번뇌하며 유대인에 자비를 베풀고자 했다.

역자 이재형씨는 “‘갈로-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 장르로 분류되는 그의 작품들은 역사적 사실과 소설화된 삶의 혼합체”라며 “로마인들에 대해 안다는 것은 역사와 소설이라는 거울 속에서 우리에게 계승된 하나의 문명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썼다.

〈예담·각 권 9천8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김재희씨 새 장편소설

‘백제결사단’ 펴내



지난해 한글 창제의 비밀을 둘러싼 미스터리 ‘훈민정음 암살사건’을 통해 한국형 팩션을 선보였던 김재희씨의 새 장편소설.

‘백제결사단’(전 2권)은 대선을 앞둔 2007년 어느 날, 백제유물특별전을 위해 서울로 수송 중이던 국보 제287호 금동대향로가 도난당하면서 시작한다. 이어 참수형의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방식이 백제식 처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사건을 좇는 형사 서민찬은 일련의 일들이 역사 속의 비극적 살인들이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1400년 전 역사를 능멸한 이들을 처단했던 백제결사단의 정체는 무엇일까. 금동대향로에 대한 비밀과 암호가 하나씩 풀리면서 역사의 진실도 밝혀지는데..

〈랜덤하우스·각 권 9천원〉

여자, 탐구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

‘여자, 은하계를 통틀어 가장 난해한 생명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도 여자에게는 통용되지 않으니 탐구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

이외수의 신작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는 이렇게 시작된다.

‘여자도...’는 소설 ‘장외인간’ ‘괴물’, 에세이 ‘감성사전’ ‘날다 타조’의 저자인 이외의 독특한 감성과 글쓰기가 그대로 묻어나는 책으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종다양한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춘천을 떠나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에서 ‘시간의 영구리 바늘질하는 재미’로 살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여성의 존재가 가지는 힘을 위트와 재치로 풀어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 이외수 지음

내고 있다.

저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속물 근성을 버리는 것. 이는 여성 뿐 아니라 인간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내면의 허영과 인공미에 몰두하는 ‘빈장녀’와 포부는 하늘을 찌르는데 노력은 밤바닥에 붙어 있는, 허황된 꿈을 좇는 ‘빈장남’들에 따끔한 일침을 가한다.

‘줄서기’에만 몰두해 ‘문인은 풍년인데, 문학은 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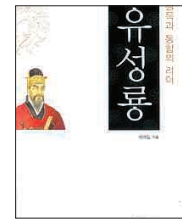
년’인 세대 역시 속물 근성이 빛이낸 결과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또 종교적인 사랑, 가정에서의 사랑, 학생들에 가르쳐야 할 사랑 등 ‘남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사랑의 모습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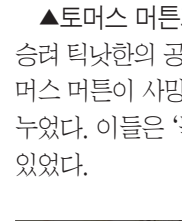
저자는 ‘사랑은 단지 한 사람을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죄복 하나로 아찔이면 그대를 문책하고, 저녁이면 그대를 고통하는 것’이지만 ‘결코 회피하지는 말라’고 말한다.

‘보리 동식물도감’ 등을 집필한 세밀화가 정태원씨가 3년간 발로 훑으며 찾아낸 야생화 55종을 그린 삽화는 책을 더욱 빛낸다. 〈해냄·1만2천원〉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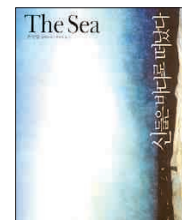
▲설득과 통합의 리더 유성룡=역사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역사학자 이덕일씨가 조선의 재상 유성룡을 다시 썼다. 임진왜란과 당쟁이라는 두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른 유성룡의 삶을 통해 조선 중기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역사의아침·1만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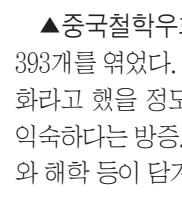
▲토머스 머튼과 탁날한=가톨릭 수도사 토머스 머튼과 불교 승려 탁날한의 공통점은 ‘참여 영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토머스 머튼이 사망하기 2년 전 딱 한 번 만났지만 진한 우정을 나누었다. 이들은 ‘묵상 생활이 곧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두레·1만6천800원〉



▲이주향의 치유하는 책읽기=라디오와 TV, 신문을 통해 인문학을 전파하고 있는 이주향 수원대 교수의 독서 에세이. 59개의 텍스트가 변화, 사랑, 가족 등 8개 주제로 나누어졌다. 저자가 힘들었을 때 위안이 됐던 메시지가 차분한 필치로 전개된다. 〈북스·9천800원〉



▲신들은 바다로 떠났다=영국의 ‘부커상’ 2005년 수상작인 존 반빌의 소설. 아내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어린 시절 여름을 보냈던 바닷가를 찾은 미술사학자의 추억 더듬기가 큰 줄기다. 세련된 문체와 묘사로 현대 영미문학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랜덤하우스·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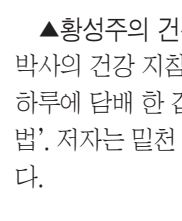
▲중국철학우화 393=동양철학자 김태완씨가 중국의 우화 393개를 엮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자신 말의 열 중 아홉이 우화라고 했을 정도로 빗대 말하기를 즐겼다. 중국인들이 우화에 익숙하다는 방증. 철학적 담론 뿐 아니라 삶의 이치나 교훈, 풍자와 해학 등이 담겨 있다. 〈소나무·2만원〉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캐나다 소설가 엘리스 먼로의 단편 9개를 묶은 소설집.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아내를 요양소에 보낸 남자(‘꿈이 산을 넘어오다’), 우연히 옛 남자친구를 만난 중년 여성(‘뽕기풀’) 등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בל·1만천원〉



▲애널리스트=스틸러 작가 존 카멘마크의 2002년 작. 광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정신분석가 리키 스타크에게 53번째 생일날 “당신에 내 인생을 맡겼다. 자살하라”는 내용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그는 주인공에게 15일의 시간을 주는데.. 〈대교출판사·1만2천800원〉



▲황성주의 건강하게 사는 법=이름 생식으로 유명한 황성주 박사의 건강 지침서. 원제는 ‘황성주의 일주일에 두번 술 마시고 하루에 담배 한 갑 피우며 원하는 것 맘대로 먹고 건강하게 사는 법’. 저자는 밀전 안 드는 투자로 건강잔고를 늘려가라고 충고한다. 〈웅진리빙하우스·1만2천원〉



▲태양의 나라, 땅의 사람들=국내에서 보기 드문 페루 미술 기행서. 멕시코에서 유학 생활을 한 조각가 유화열씨는 미술을 통해 페루를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이 빛이낸 미술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페루 미술은 문화와 삶이 어우러진 ‘페루의 영혼’임을 역설한다. 〈이트북스·1만5천원〉

싱그러운 새 봄을 맞아 모디쉬갤러리가 신축 오픈이벤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디쉬갤러리 Open Sale

MODISH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페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별도), 협탁
몽블랑 2+2 가족소파 (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족소파 (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황옥 4인 대리석식탁 (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환기 (선착순 20명) → 39,000원

미가엘 침실세트(원경장롱12자+화장대세트4침대(4)4침대)

Open기념 황토침대, 장수온돌침대 한정판매

HS-6720 비토 1,990,000원 (5조한정판매)
JSD-비토Q 1,470,000원 (5조한정판매)

미가엘 5단서랍장, 아시아 2.2 소파, 미가엘 화장대, 오메가 대리석 식탁세트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10621252-3001~2 / 금호월드 7층 10621350-8764

두메 21세기 식문화를 재창조 하는 젊은 기업

- 외식업계 15년 노하우로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드립니다.**
이·취임식, 창립기념식, 세미나, 회갑연, 피로연, 출장뷔페, 시제상, 도시락 등 기타음식행사
- 어머니 정성 그대로 담은 100% 순수 국내산 맛깔찬 김치!**
30여종의 다양한 김치 생산으로 홍콩, 대만, 일본 등 수출 2003,2004 광주김치대축제 최우수상 수상
- 학교,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위탁급식운영 및 식자재 납품**

두메외식산업(주) www.dumept.co.kr
두메김치(주) www.dumekimchi.co.kr
두메푸드시스템(주) www.dume1992.co.kr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1-2 TEL.(062)571-6000 FAX(062)571-6030